

머무는 듯 흐르는 '나대로' 장구장단 흥나면 올리고 내지르고...

일렬로 늘어선 소리꾼들이 고음의 우렁찬 소리를 질러대며 소고를 두드린다. 10명이 넘는 이들과 소리를 주고받는 무대의 주인공은 장구를 옆으로 세워 맨 모퉁이. 그의 머무는 듯 흐르는 나대로 장구 장단에 온 나라 명산들이 치솟는 소리로 뿔어나온다. 그 상성(上聲)의 소리에 소리꾼들은 발립(發立) 손짓을 섞은 동작으로 화답하고 무대는 장구와 소고, 높고 깨끗한 소리로 신명나게 어우러진다.

국악의 색다른 정취가 느껴지는 이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 소리에 얽힌 이야기를 듣기 위해 무대의 모퉁이 소암 황용주(67·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 산타령' 예능 보유자) 명장을 찾았다. 시조에 밀려 판소리에 눌러 그 이름 몇 자도 제대로 알리지 못한 민간의 소리 '선소리 산타령'에 50년 인생을 바친 소리꾼. 그가 장구채를 길게 뽑아내며 반 백년간 장구 속에 묻어뒀던 소리 이야기를 굵이굵이 펴기 시작했다.

"서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산을 꿈꿀 수 있는 소리야. 조선팔도 산천경개를 어디 서건 펼칠 수 있는 생명이 담긴 소리..."

황 명장은 선소리 산타령에 범어에 가까운 열불조가 녹아있는 것이 단순히 기법적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부처님을 간절히 생각하며 세상 시름 허튼 욕망을 한 마음에 놓아버리듯, 산수(山水)를 일념으로 오롯이 품는 마음은 곧 부처의 마음이라 했다.

그가 산타령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황회 정승 직계의 뼈대깊은 유학가 가문은 사리와 분별은 명확히 가르쳐 주었지만, 산수를 홀로 떠돌아다니는 시선과 그 감흥에 깊이 침잠하는 내면의 소리에 냉담했다. 그래서 그는 서당을 운영하던 조부의 강경한 뜻을 뒤로 하고 홀출단신으로 상경, '청구고전서약원'에서 소리를 시작하게 된다.

소리계에서는 그 위상이 대단했던 이창배 선생

의 문하제자가 된 황 명장. 그는 이창배 문하에서 가사, 시조, 경기소리, 서도소리, 선소리 산타령 등 소리라는 소리는 모두 다 배웠다. 정악이나 속악이니 하는 분류로 우리의 소리가 임의로 구분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 바탕은 하나라는 생각에서다. 통하는 것들은 다시 되짚어 봤고, 어긋나는 것들은 그 고유의 색을 다시 확인했다.

그렇게 기본을 닦은 황 명장은 이제 소리의 현장에 뛰어들게 된다. 다양한 소리의 감을 잃지 않기 위해 민요학원 등지를 유랑하며 뜨뜻뜨뜻 소리를 가르쳤다. 그리고 평생의 과업으로 삼은 선소리 산타령과 하나가 되기 위해 낮과 밤도 모르고

에 들어간 소리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선소리 사설 정리다.

"원고지와 오선보 8천장이 쌓였어. 그런데 양이 문제가 아니었지. 알 듯 말 듯한 불교용어는 물론이고 중국 고사를 모르면 풀어낼 수 없는 구절이 상당했어. 그래서 도서관 고서에 묻혀 사는 게 일어났지. 남은 시간에는 소리 내지르며 읊조리고..."

소리 전승은 '구전심수(口傳心授)'가 원칙이라 그것을 체계화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황 명장은 막연한 소리를 하나하나 오선보에 그려 올리고 한문을 일일이 한글로 풀어 선소리 사설을 대대적으로 정리했다.

그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었는지 황 명장은 92년에 이르러 '선소리산타령'의 '기예능보유자(인간문화재)'가 됐다. 또한 결망 때고 떠돌면서도 일념으로 매진한 후학양성의 길도 안정선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그는 꿈에 그리던 '선소리산타령전수소(02-743-1772)'를 설립, 지금까지 전수생과 제자들을 위한 소리교육을 펼치고 있다.

그런 그의 50년 소리 인생을 담은 앨범이 최근 새로 출시됐다. 노래하는 산자락에 노장의 깊은 시선이 묻어나고 내지르는 타령에 객승의 한(恨)이 소리없이 흐른다. 무대에 서면 가득찬 객석이 곧 산천경개로 화하고 그 봉우리마다 절집이 우뚝우뚝 서는 것을 느낀다는 황 명장.

"그냥 부를 뿐이야. 산수가 끌어당기는 대로 내어 놓으면 그만이지. 두 다리 땅에 튼튼히 세우고 흥이 나는 대로 올리고 내리고 지르고 당기고..."

오는 4월 8~9일 서울국악제에서의 그의 '선소리 산타령' 무대(국립국악원 예악당)를 기대해 본다.

글=강신재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선소리 산타령 황용주 명장

명장 이창배 선생에게 모든 소리 배워 口傳心授 원칙에 체계화 어려움 겪어 정리 위한 원고지, 오선보만 8천 여장 "어느날 문득 단전아래 산이 앉았지"

소리에 몰두했다. 두 율리브에 이르는 넓은 음역의 높고 깨끗한 소리를 소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매일 새벽 4시 뒷산에 올라 2시간 동안 소리 내지르기를 3년, 잠도 밟고 있어가는 것 같더니 어느 날 문득 산이 단전 아래 앉아서 들어왔다. 하얀 새벽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있는 산을 끌어올리는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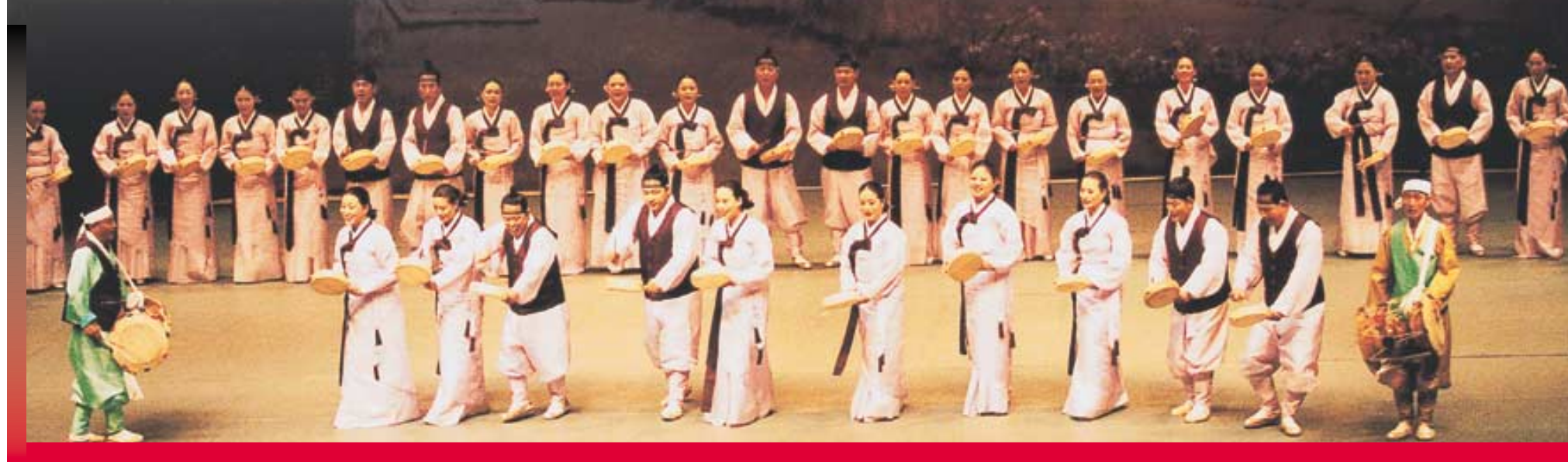
황 명장은 거기서 안주하지 않았다. 풀뿌리 사막기도 힘든 가난이 그를 유죄인 3년간의 전국 순회공연으로 빚었지만 22명이 따라붙었지만 마음



선소리 산타령이란?

서서 부르는 산타령...범패와 유관

서서 부르는(立唱) 산(山)타령. 놀람, 앞산타령, 뒷산타령, 자진산타령, 개구리타령 등 5개 타령으로 구성된다. 다른 민속음악이 무속음악이나 토속민요에 근간을 두고 있다면, 선소리 산타령은 불교음악에 기반을 둔 새로운 장르의 민속음악이다. 조선 초 억불숭유 정책이 밀려 거리로 나앉게 된 선인들이 산천을 떠돌며 부른 애절한 삶의 노래가 선소리 산타령의 시작이다. 그래서 노래 기막에는 불교음악인 범패의 지소리, 훗소리, 화성 등의 발성법이 상당 부분 녹아 있으며, 가사 역시 사찰을 묘사하거나 불교적 소재를 차용한 경우가 많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 2004 부다피아 SUMMER CAMP

미국 하와이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

현대불교신문사는 창간10주년을 맞아 100년전 이민의 첫발을 내딛던 미국 하와이에서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 문화 체험캠프를 개최합니다. 2004 부다피아 여름 캠프는 지상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미국 하와이에서 전문적인 어학교육과 함께 역사 및 문화체험으로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필요성을 깨닫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폴리네시아 및 미국 현지인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넓은 세계를 배움으로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높은 안목을 갖춘 세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 참가대상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기 간 : 7월 28일 ~ 8월 17일 (20박 21일)
- 참가비 : 250만원 (여권·비자수수료 별도) ● 정 원 : 선착순 50명
- 참가신청 : 3월 15일 ~ 5월 10일까지 (※미국 비자신청은 별도문의 바람)
- 장 소 : 하와이 무량사 한인문화원
- 주 최 : 현대불교신문
- 주 관 : 하와이 스타트대학교 부설 영어교육원
- 후 원 : 조계종포교원 전각종통리원 (재)보덕학회
- 문 의 : 현대불교신문 02)722-4162~3, 016-292-1987
- 참가비 입금통장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 준 비 물 : 여권, 미국 비자, 학생증, 필기도구, 카메라와 필름, 숙식 3~4박, 서초와 바지 2~3벌, 모자와 선글라스, 수영복과 샌들, 비옷, 수건과 비누, 자외선 차단크림, 작은가방



하와이 한인문화원 전경

* 참가학생 부모님의 경우 하와이 사찰에서 공동생활을 전제로 참가가 가능합니다. 참가비는 관광비용 포함해 1주 180만원, 2주 200만원, 3주 220만원입니다.

이점들이 좋아

- 참가비 최소화 - 하와이 무량사 숙식후원 가격거품 제거. 항공요금과 교육비, 관광요금만 실비정산.
- 믿을 수 있는 기관 - 불교계 대표 언론사와 하와이 무량사가 보증.
- 원어민 교수진 - 하와이대학교 어학연수원 현지 교수와 강사로 구성. 소정의 자격과 국제경험 쌓은 원어민 강사 엄선.
- 어학연수기관 사용 교재 - 미국 어학연수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재.
- 효과적인 회화구사 - 강의내용을 문화체험시 실제 상황에 적용해 유창한 영어를 구사.
- 단계별 수업 - Test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레벨에서 공부하도록 하여 실력을 빠르게 향상.

프로그램 일정표

일 정	시 간	프 로 그 램	일 정	시 간	프 로 그 램
7월 28일(수)	오전 8시	영어학교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전용)	8월 7일(토)	09시-12시	와이키키해변 수영, 휴식
7월 29일(목)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8일(일)	10시-12시	하와이 친구들과 대화, 휴식
7월 30일(금)	09시-16시	한인이민의 역사인 사탕수수농장, 자연박물관 관람	8월 9일(월)	09시-16시	진주만 방문. 다이아몬드 헤드 등반
7월 31일(토)	10시-12시	와이키키해변 수영, 휴식	8월 10일(화)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1일(일)	10시-12시	하와이 친구들과 대화, 휴식	8월 11일(수)	09시-16시	하와이왕국 이올라나 궁전 탐방 및 퍼레이드 관람
8월 2일(월)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12일(목)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3일(화)	09시-16시	카일리만디르호텔 돌고래쇼 및 코닥 홀라쇼 체험	8월 13일(금)	09시-16시	바다 물고기와 함께 하노우마베에서 수영
8월 4일(수)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14일(토)	09시-16시	영어학교 졸업식, 휴식
8월 5일(목)	09시-16시	하와이 폴리네시아인민속춤 및 공연관람	8월 15일(일)	10시-12시	하와이 친구들과 대화
8월 6일(금)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16일(월)	09시-18시	화산의 신비를 눈앞에서 빅아일랜드 화산성 탐방
			8월 17일(화)	10시-	출발